EAI 여론브리핑 제144호
ISBN 979-11-87558-59-0 95300

Issue Briefing

2017 EAI 대선 1차 여론조사

보수층의 표심

2017년 5월 4일

한정훈_서울대 국제대학원

1. 대선후보 경쟁구도

- 문재인 42.6%, 안철수 28.4%, 홍준표 7.5%, 심상정 3.9%, 유승민 3.2%

2. 보수층의 분포

- 보수 26.2%, 중도 39.0%, 진보 34.8%

(1) 연령별

- 연령별 보수층의 분포 20대 13.4%, 30대 18.0%, 40대 16.9%, 50대 33.0%, 60대 38.0%, 70대 이상 54.1%

(2) 지역별

- 지역별 보수층의 분포는 서울 22.2%, 인천·경기 22.9%, 대전·충청 33.3%, 광주·전라 13.6%, 대구·경북 39.2%, 부산·경남 31.2%, 강원·제주 27.1%

(3) 가구소득별

- 월평균 가구소득별 보수층의 분포는 200만원 미만 39.5%, 200만원~300만원 23.7.4%, 300만원~500만원 24.1.5%, 500만원~700만원 23.8%, 700만원 이상 25.2%

3. 보수층의 지지정당

- 자신이 보수성향의 이념을 지녔다고 응답한 379명이 지지하는 정당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 15.9%, 자유한국당 24.8%, 국민의당 19.1%, 바른정당 8.4%, 정의당 4.6%, 기타정당 3.7%, 지지하는 정당없음 23.5%

4. 보수층의 지지후보

- 자신이 보수성향의 이념을 지녔다고 응답한 379명이 지지하는 후보를 살펴보면, 문재인 19.7%, 홍준표 21.6%, 안철수 40.5%, 유승민 5.1%, 심상정 3.7%, 기타 3.1%, 지지후보없음 6.5%

5. 보수층의 지지후보 결정 이유

- 자신이 보수성향의 이념을 지녔다고 응답한 379명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였다고 응답한 요인 가운데 가장 많이 응답한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 27.7%, 도덕성 19.2%, 이념과 공약 32.9%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요 약〉

- 2017년 5월 9일 선거를 19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안철수 후보에 비해 14%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벌이고 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같이 보수성향의 후보로 평가되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한 경우에도 2위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지지율 분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보수층의 후보별 지지율의 분포이다. 자신이 보수성향을 지녔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를 가장 지지하는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역시 홍준표 후보와 단 2% 정도의 차이로 매우 미미하며, 유승민 후보와 비교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15% 정도의 보수층에게서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보수층은 정당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을 보수성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은 가장 지지하는 반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그 다음으로 지지하는 정당으로 꼽고 있다.
- 보수층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요인에 대한 응답은 이와 같은 변화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한다. 보수층의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요인은 후보자의 이념과 공약이었다. 이는 보수층의 후보별 지지율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에서 보수층은 자신의 정책적 선호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이 보수성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이 아닌 중도성향의 국민의당, 진보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촛불국면을 지나면서 보수정치세력의 분열과 신생보수정당들에 대한 생소함이 이와 같은 보수층 유권자의 변화를 낳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1. 대선후보 경쟁구도

- 문재인 42.6%, 안철수 28.4%, 홍준표 7.5%, 심상정 3.9%, 유승민 3.2%

-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5명의 잠재적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여부를 조사하였다.
- 대선을 19일 남겨둔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2위의 지지율을 보인 안철수 후보에 비해 14.2%, 3위의 지지율을 보인 홍준표 후보에 비해 35.1%의 격차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조사의 표집오차가 ±2.5%였음을 고려할 때, 문재인 후보와 2위의 지지율을 보인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에 해당한다.
- 문재인 후보의 이와 같은 상대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이 가능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보수층 유권자의 분열일 것이다. 따라서 대선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 보수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대선경쟁구도를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2. 보수층의 분포

- 보수 26.2%, 중도 39.0%, 진보 34.8%

-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이면 0점, 중도적이면 5점, 매우 보수적이면 10점으로 하여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이념성향을 조사하였다.
- 응답자들 가운데 모름/무응답에 해당하는 53명을 제외하고, 자신의 이념성향을 밝힌 1,447명에 대해 0부터 4점의 사이의 숫자로 응답한 이들을 진보, 6부터 10점 사이의 숫자로 응답한 이들은 보소, 5점으로 응답한 이들은 중도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재코딩 과정은 진보성향을 지녔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수성향을 지녔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8.6%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 일반적으로 과거 설문조사가 한국 유권자들은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보수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응답자의 이념성향 분포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시위를 경험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이 진보 쪽으로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본 설문조사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촛불과 탄핵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설문 응답자들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는 후자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보수층에 대한 아래의 분석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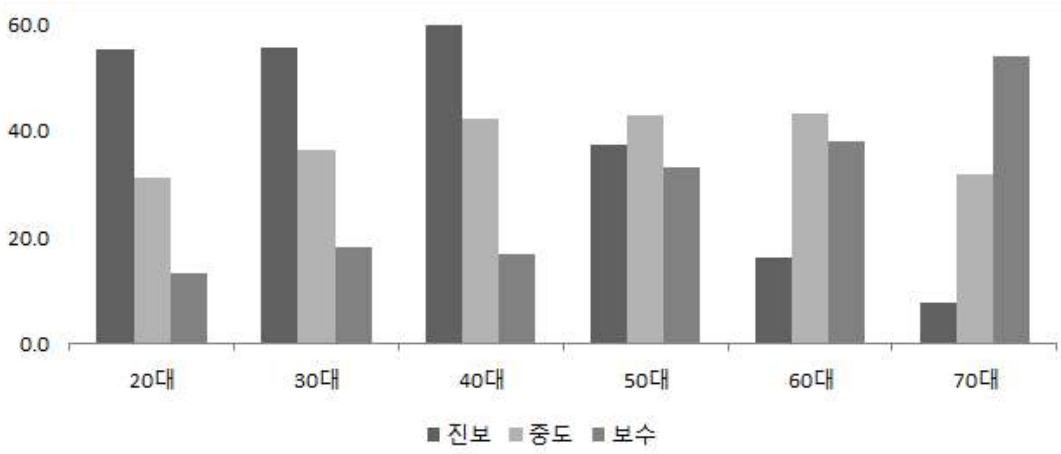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1) 연령별

- 연령별 보수층의 분포 20대 13.4%, 30대 18.0%, 40대 16.9%, 50대 33.0%, 60대 38.0%, 70대 이상 54.1%

-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설문조사에서 관찰되는 연령별 이념성향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뚜렷한 현상이었다.
- 이념성향을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 26.2%에 해당하는 379명이 보수층에 해당하였다.
- [그림 1]은 연령대별로 이념성향의 분포를 보여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수성향을 지닌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뚜렷한 양상이 관찰된다. 또한 40대부터 60대까지는 중도성향을 지닌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또한 최근 젊은층 유권자들 가운데 보수층이 상당한 비율을 점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20대의 경우 55.3%에 이르는 응답자가 진보성향을 지닌 것으로 답하고 있으며, 단지 13.4%만이 보수성향을 지닌 것으로 답하였다.

[그림 1] 연령대별 이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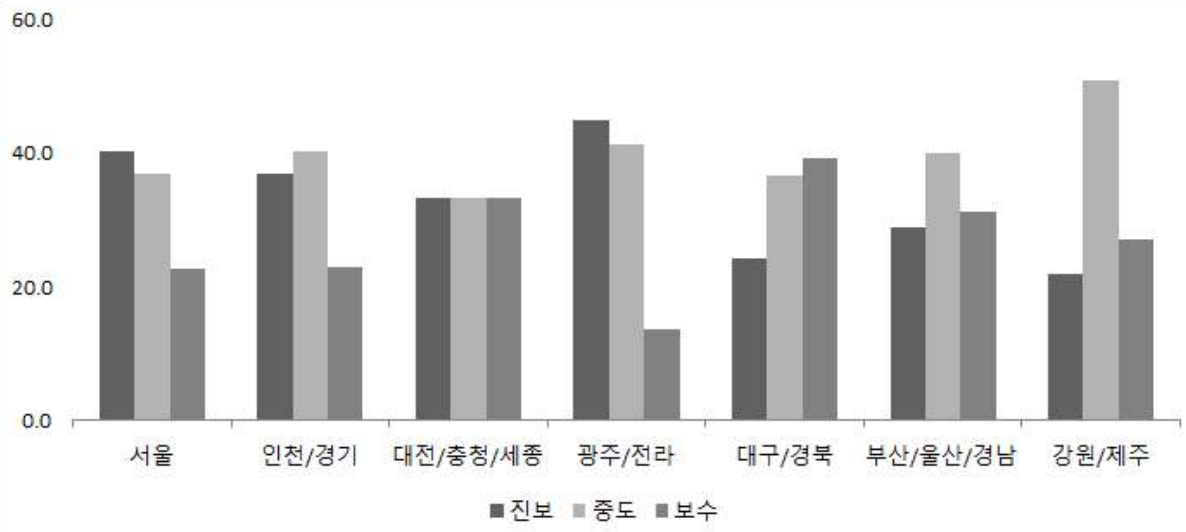
(2) 지역별

- 지역별 보수층의 분포는 서울 22.2%, 인천·경기 22.9%, 대전·충청 33.3%, 광주·전라 13.6%, 대구·경북 39.2%, 부산·경남 31.2%, 강원·제주 27.1%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 [그림 2]는 지역별로 영남과 호남 사이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형성되어있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 우선 대구·경북 지역에 보수층이 많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청 지역이 다음으로 보수층의 비율이 많다는 점은 흥미롭다. 대전·충청 지역은 부산·경남 지역에 비해 2% 이상 높은 비율,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6% 이상 높은 비율의 보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 또한 서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보성향의 유권자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광주·전라 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45.0%의 응답자가 진보성향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2] 지역별 이념 분포



(3) 가구소득별

– 월평균 가구소득별 보수층의 분포는 200만원 미만 39.5%, 200만원~300만원 23.7.4%, 300만원~500만원 24.1.5%, 500만원~700만원 23.8%, 700만원 이상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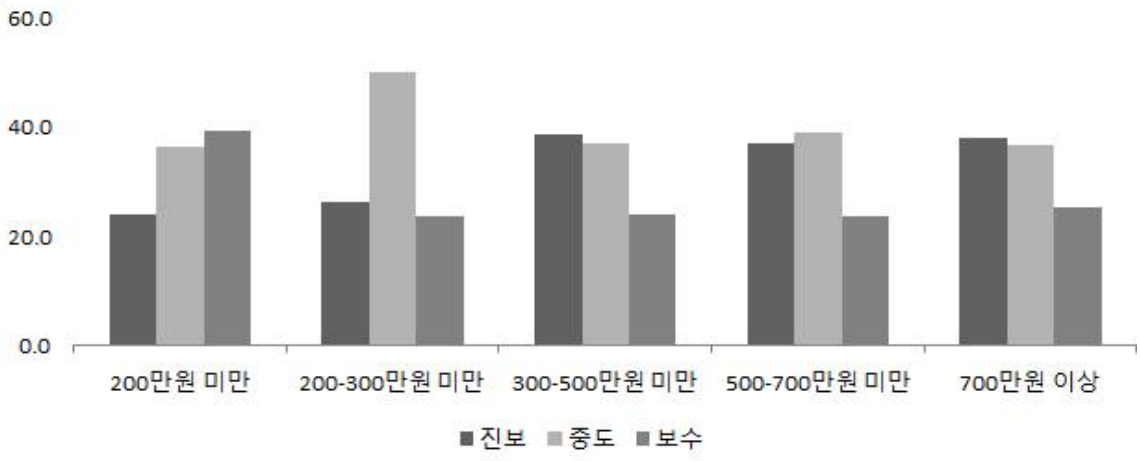
- [그림 3]은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보수층의 분포는 이념성향과 소득으로 측정된 경제적 지위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구간에서 보수성향 유권자의 비율이 진보성향 유권자의 비율보다 높다. 또한 대조적으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구간에서 진보성향 유권자의 비율이 보수성향 유권자의 비율보다 높다. 중간소득 구간에서 이와 같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진보적 성향을 지니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관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번에서 소득과 이념성향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보수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였으며, 300만원~500만원의 월평균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가구소득을 지닌 경우가 24.1%로 두 번째로 보수층의 비율이 높은 소득구간이었다.

- 진보층의 비율 역시 300만원~500만원의 소득구간에서 38.8%로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500만원~700만원의 소득구간에서 37.1%에 해당하였다. 이는 소득에 따라 이념성향이 달라지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3] 월평균 가구소득별 이념 분포



3. 보수층의 지지정당

– 자신이 보수성향의 이념을 지녔다고 응답한 379명이 지지하는 정당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 15.9%, 자유한국당 24.8%, 국민의당 19.1%, 바른정당 8.4%, 정의당 4.6%, 기타정당 3.7%, 지지하는 정당없음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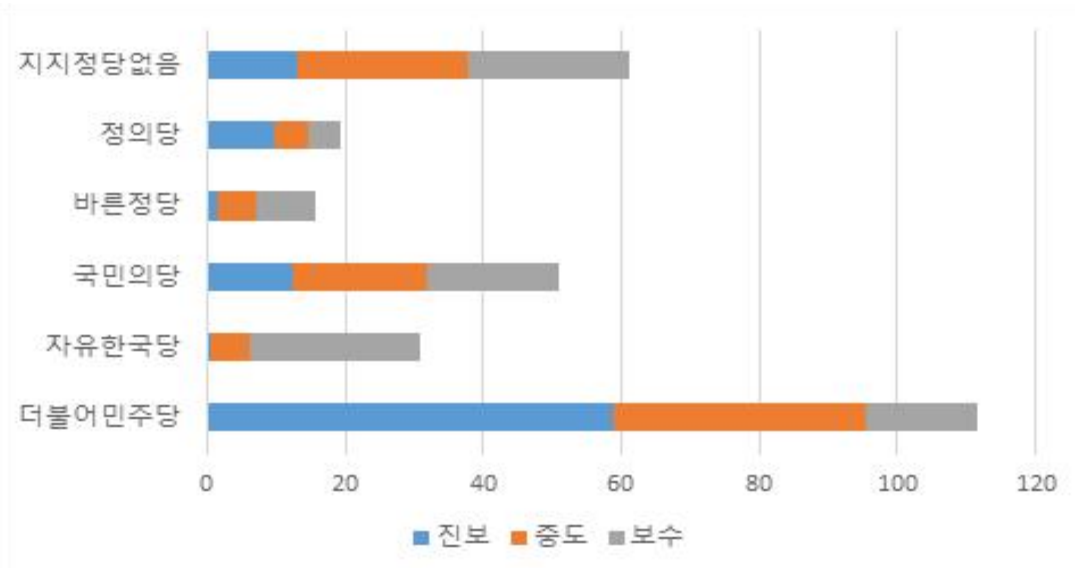
- [그림 4]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의 보수층은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로부터 상당히 이탈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지지라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인 심리적 성향이라고 가정할 때, 보수성향의 유권자 23.5%, 진보성향의 유권자 13.2%가 아직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정당정치가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중심으로 유권자와 정당 간 안정적인 연계성(linkage)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우선, 자유한국당의 지지자 비율이 24.8%로 가장 높은 것은 예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국민의당의 19.1%, 더불어 민주당의 15.9%는 또 다른 보수정당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바른정당의 8.4%보다 7%이상 높은 비율의 보수층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보수성향 유권자의 비율이 23.5%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분산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 대선 국면에서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으로부터 상당한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수성향의 유권자와는 대조적으로 진보성향의 유권자는 상당히 결집된 정당지지현상을 보여준다. 58.9%의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12.4%와 9.8%의 유권자가 각각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지지비율을 제외하더라도 68.7%의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진보정당이라고 알려진 정당과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보성향을 지닌 유권자 가운데 13.2%만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은 보수정당의 23.5% 그러한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목격된다.
- 중도성향 유권자의 정당지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보수성향의 유권자와 유사한 비율은 24.6%가 아직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 보수층 지지정당



4. 보수층의 지지후보

– 자신이 보수성향의 이념을 지녔다고 응답한 379명이 지지하는 후보를 살펴보면, 문재인 19.7%, 홍준표 21.6%, 안철수 40.5%, 유승민 5.1%, 심상정 3.7%, 기타 3.1%, 지지후보없음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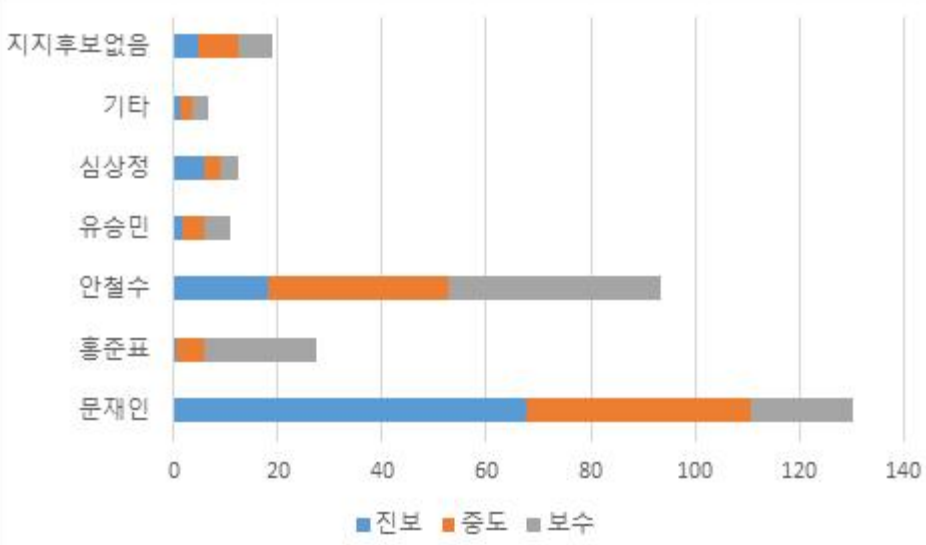
- [그림 5]의 회색부분으로 나타난 보수성향 유권자의 후보별 지지율은 보수층의 후보지지의 분산현상을 보여준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중도성향으로 평가받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후보가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비교할 때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당한 격차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 보수층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 40.5%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역시 19.7%의 지지를 받고 있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간주되는 홍준표 후보의 21.7%보다는 2% 낮은 수준의 지지를, 유승민 후보의 5.1%보다는 14.6%나 더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
-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율은 일반적인 예상에 부합한다. 문재인 후보가 67.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중도성향의 유권자 역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된 지지를 보내고 있는 특징이 드러난다.
- 이러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후보지지의 분산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비율이 단지 6.5%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다시 말해 보수성향의 유권자들 대부분이 상당 부분 지지후보를 이미 결정한 상태이고,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보수 유권자층의 표가 특정 후보에게 결집되더라도 선거경쟁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상황임을 함의한다.

[그림 5] 보수층 지지후보



5. 보수층의 지지후보 결정 이유

- 자신이 보수성향의 이념을 지녔다고 응답한 379명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였다고 응답한 요인 가운데 가장 많이 응답한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 27.7%, 도덕성 19.2%, 이념과 공약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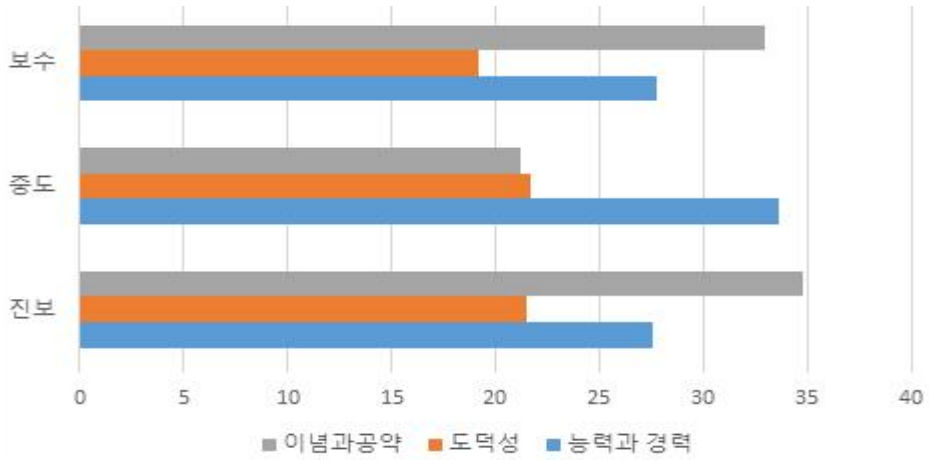
- [그림 6]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를 위에서 나타난 지지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분포와 결부시켜 해석할 경우 특정 보수후보에게 지지가 결집되지 않고 중도성향의 후보 또는 진보성향의 후보에게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분산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의 이념, 공약이 얼마나 보수적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냐에 따라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보수층의 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017년 4월 현재 보수층은 후보자의 이념과 공약을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다음으로 능력과 경력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도덕성은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속정당 및 당선가능성,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는 응답자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 진보성향을 지닌 유권자 역시 보수성향의 유권자와 동일한 순서로 후보자 지지요인을 고르고 있다. 이념과 공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능력과 경력, 도덕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이들 진보와 보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덕성, 이념과 공약은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림 6] 보수층 지지후보 결정이유



- 위와 같은 분포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출신지역 및 후보자의 소속정당의 중요성이 급감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총선 이후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둘째, 이념적 지향의 양 쪽을 점하고 있는 진보, 보수성향과 중도의 이념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의 후보자 지지결정 요인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중도는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반면, 진보와 보수는 이념과 공약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같은 모호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요인보다는 뚜렷이 드러나고 쉽게 검증이 가능한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점이다.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EAI 2017 대선 패널 1차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재)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7년 4월 18 – 20일 (3일간) · 4월 18일: 13시-21시 · 4월 19일: 13시-21시 · 4월 20일: 13시-21시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대상 선정방법	지역·성·연령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1,500명 · 유무선 RDD 748명, 액세스 패널 752면 · 유선번호 245명, 무선번호 1,255명
응답률	19.5% (총 7,69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500명 응답 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2.5%
질문내용	본 보고서 본문에 제시

EAI 2017 대선 패널조사 연구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이한수(아주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한정훈(서울대) · 배진석(고려대)
- 조사팀 : 오승호 · 전주현 (이상 한국리서치)

ㅣ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ㅣ 내용문의 EAI 남지현 연구기획실 연구원(02-2277-1683 내선112, jhnam@eai.or.kr)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